

활동을 개시하였으나 회장, 부회장이하 간부 10여 명이 경찰에 체포 구금됨으로써 활동이 침체되고 말았다.

1924년에도 도민들은 힘을 합쳐 소작료 징수에 항거하였고, 이러한 소작료 불납 투쟁의 결과로 1928년 1월 하의 농민 조합이 결성되었다.

농민들이 농민 조합을 중심으로 토지 회수 및 소작 문제를 조직적으로 풀어 나가려 하자, 덕일은 친일

분자이며, 폭력배로 유명한 상애회(相愛會) 박춘금(朴春琴) 일당을 동원하여 농민회를 탄압하였다.

결국 1928년 2월 농민 수백 명과 충돌하였고, 이들 중 12명이 공판에 회부되었는데 공유범, 공화범, 김찬배, 변인옥, 우정윤, 우정선, 최옥중, 최용도, 최용환 등 10명은 1928년 10월에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향토 문화

신안과 한국 전쟁

編輯者

1950년 6월 25일에 자행된 북괴의 침략에 신안의 각 도서(島嶼)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천 상륙 작전 후 국군 해병대에 의해 수복될 때까지 좌·우익의 충돌로 신안군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희생을 당하는 가슴아픈 상처를 남겼다.

특히 북괴군 및 좌익들은 반장이

나 부락 청년 단체에만 가입되었어도 반동 분자, 악질 분자의 낙인을 찍어 잡아넣고 억지로 범죄 사실을 만들어 모진 고문을 했으며, 신안군 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을 집단으로 구덩이 속에 넣고 생매장을 하거나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